

# SKT-도이치텔레콤, '5G 기술개발 합작회사' 설립

양사 50 대 50 지분, 독일에 본사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 마련  
5G 인빌딩 등 선도기술 개발

SK텔레콤이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손잡고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한국-독일의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과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영상 회의를 통해 '5G 기술 합작회사(가칭)' 설립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이치텔레콤은 전 세계 13개국에서 약 2억4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다.

합작회사는 양사가 50 대 50 지분을 가지며, 본사는 독일에 마련된다. 각각



일 오후 SKT 서울 을지로 본사 회의실에서 박정호 사장과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화면 첫줄 두번째)이 영상회의를 통해 '5G 기술 합작회사' 설립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SKT

이 지명한 공동 대표 2명과 양사의 사업,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주주대표 4명이 경영진으로 참여한다. 관계 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내 정식 설립된다.

양사는 합작회사를 통해 5G 인빌딩

솔루션 등 선도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ICT 기업에 기술을 전파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앱마켓, AR·VR, MEC 등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합작회사가 공략하는 인빌딩 솔루션 시장 규모는 매년 약 10% 성장해 오는 2023년 약 103억3000만달러(약 11조 6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양사는 이미 한국에서 개발된 '5G·LTE RF 중계기'를 올해 상반기 유럽에 맞게 최적화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독일 주요 8개 도시에서 실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합작회사는 시범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5G·LTE RF 중계기를 내년 상반기 내 상용화할 예정이다.

SKT는 수년 간 준비한 기술자산 약 100건을 합작회사에 제공하고, 이에 따른 로열티를 매출에 비례해 받게 된다. 아울러 합작회사의 성과에 따른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한국 중소장비사와 함께 유럽 등에 동반 진출하고, 한국 5G 기술을 전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T는 RF 중계기 등 핵심 장비를 개발할 때 한국 장비사와 협업해왔다.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은 "합작회사는 중계기 기술로 시작해 훨씬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두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혁신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호 SKT 사장은 "팬데믹 상황 속 양사간 국경을 넘는 5G 초협력이 이뤄져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사가 아시아-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인류에 새로운 가치를 주는 기술, 서비스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KT,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구축

지능형 가상발전소 운영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추진

KT는 지능형 가상발전소 운영 및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T 대구물류센터에 0.9MW급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능형 가상발전소 운영은 KT만의 연료전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상 발전 사업자(VPP, 연료전지 등을 활용해 소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발전 운영을 돕는 사업이다. 발전 및 설비운용 상태를 KT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인 KT-MEG에 의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데이터 분석, 장애 대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은 전역에 분산된 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에서 생산된 1MW 이하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이번 KT 대구물류센터 사례처럼, 유휴 공간에 설치된 연료전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전력 거래소에 판매한다.

전력중개 사업은 앞으로 실증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KT 직원들이 KT 대구물류센터에 구축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를 KT-MEG를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KT

예정이다.

KT는 지난 2016년부터 전력중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전력중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T 기가 에너지 트레이드'라는 상품을 미리 선보이기도 했다.

또 KT는 2018년부터 대관령 KT 수련관, 대전 대덕2연구단지에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며 전력중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창원과 구미의 산업단지에도 총 6.7MW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KT는 ▲그린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스마트산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맞춰 DR, 연료전지, 에너지 효율화 등 앞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KT 기업신사업본부 문성욱 본부장은 "KT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를 위해 KT 자체적으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자가소비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 진출과 소규모 분산발전 자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 한국지엠, 여성 엔지니어 리더십 역량 강화

여성 사회 단체 SWE 가입

전 세계적으로 여성 엔지니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업에서 여성 엔지니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존재하며, GM은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여성 엔지니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국내 업계 최초로 여성 엔지니어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여성 사회 단체 'SWE(Society of Women Engineers)'에 가입하며 리더십 역량 강화에 나섰다.

SWE는 1950년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사회 단체로 전세계 62개국 4만 2000명 이상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6일 평평 본사에서 로베르트 램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 사장, 브라이언 맥머레이 부사장 등 임원진과 여성 엔지니어들이 참석한 가운데 SWE의 멤버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발족식을 가졌다. 특히 LG전자 등 다른 업계 국내 여성 엔지니어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글로벌 여성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함께 모색했다.

램펠 사장은 "여성 엔지니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SWE 활동을 GM이 주축이 되어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여성 엔지니어들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본격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SKT, 英 글로벌 어워드서 '최고 통신사'

5G 초연결·양자 보안 등 고품가

SK텔레콤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언택트로 개최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에서 '최고 통신사', '올해의 산업 IoT 선도'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CT 연구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는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는 올해통신 서비스와 인프라, AI, 보안, 클라우드 등 20개 부문에서 한 해 동안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으로 SKT는 2018년 미디어 서비스 혁신상, 지난해 5G 상용화, 최고 통신사, 업무·운용 지원 전환 부문 등 3관왕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

우선 SKT는 5G-LTE 결합 기술, 다중 안테나 전송 기술, SA(스탠드 얼론) 및 28기가헤르츠(㎐)를 활용한 초고속 통신 등을 포함한 '5G 초연결' 기술로 '최고 통신사' 부문을 수상했다.

또 SKT는 5G RF 중계기, 레이어스

플리터 등 차별화된 인빌딩 솔루션을 상용화했으며, MEC의 초저지연 기술을 바탕으로 한 B2B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초 양자 보안 스마트폰을 상용화해 5G 통신의 보안 수준을 개선한 것도 높게 평가됐다.

SKT의 5G B2B용 IoT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은 '올해의 산업 IoT 선도' 부문을 수상했다.

SKT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지능운송시스템, 보안감시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B2B 사업 전용 5G IoT 디바이스를 개발, 스마트팩토리용 다기능 로봇에 탑재해 상용화했다. 이를 통해 로봇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로봇의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생산 라인의 작업 효율을 높였다.

이번 수상으로 SKT는 올해 통신 관련 글로벌 어워드에서 12관왕을 차지했다. /김나인 기자

## 올레 tv 키즈랜드, 누적이용 17억건 돌파

KT 홈스쿨 콘텐츠 이용건 급증

KT는 올레 tv 키즈랜드 출시 2년 만에 누적이용 횟수 17억 건, 누적이용자 56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키즈랜드를 공식 출시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이용 행태를 집계한 결과다.

올레 tv 키즈랜드는 만 3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다.

올해 키즈랜드 월별 이용 추이를 보면, 코로나19로 개원·개학이 연기된 3월 키즈랜드 이용량이 6700만 건에 달하며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같은 기간 대비 이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장르는 '홈스쿨'이다. 올해 '홈스쿨' 콘텐츠 누적 이용 건수는 1200만 건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월평균 60% 가량 급증했다. /김나인 기자



KT 모델들이 프리미엄 키즈 콘텐츠를 완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올레 tv 프리미엄 키즈랜드'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KT

지난달 출시한 '올레 tv 프라임 키즈랜드' 요금제는 출시 한 달 만에 가입 문의가 기존 키즈 요금제 대비 5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이 요금제는 월 2만 900원(3년 약정 및 인터넷 결합 기준)이며, 6만여 편의 키즈 콘텐츠를 추가 결제 없이 무제한 감상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